

마가복음 5장 25-34절 말씀

- 25 ○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
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
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
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
-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
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
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
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
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
-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
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
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
31 제자들이 여짜오되
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
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
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
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
두려워하여 떨며 와서
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
34 예수께서 이르시되
딸아
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
평안히 가라
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